

현대중국어에서 언어환경에 의한 전의현상

라 창 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물이 처하여있는 정황에 따라서 같은 사상감정을 나타내면서도 말은 달라질 수 있고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내는 때도 있다.》(《김정일선집》 제5권 중보판 120페이지)

모든 사물현상들은 일정한 환경속에서 생겨나고 그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존재한다.

환경을 떠난 사람의 생활이란 있을수 없듯이 환경을 떠난 사람들의 언어행위도 있을수 없다.

전의현상이란 일정한 단어의 의미가 언어환경의 영향을 받아 달라지는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를 언어환경적의미라고 할 수 있다.

단어의 언어환경적의미는 단어의 기본 의미와 비해볼 때 그 뜻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으며 기본의미에서 파생된, 기본의미와 이러저러하게 련관되어있는 의미로 된다.

실례로 장해생의 소설 《旱舟(륙지의 배)》에서 중대장 정천풍이 신목더러 련애편지를 대신 써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이런 대목이 있다.

례: 申默试探道: “那你以后是自报啊, 周报啊, 还是月报啊。”

“刚进入情况, 就周报吧, 火候一到, 就改月报, 不会每封都

找你, 说实话, 我是让吹灯吹怕了。”

(신목은 떠보면서 말했다. 《그럼 앞으로 일간신문으로 하겠습니까 주간신문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월간신문으로 하겠습니까?》)

《방금 시작한 상태에서 주간신문으

로 하시오. 때가 되면 월간신문으로 바꾸시오. 매 편지때마다 동무를 찾지는 않겠네. 솔직히 말해서 난 갈라지게 될가바 두렵거든.》)

원래 《日报》, 《周报》, 《月报》는 다신문의 류형을 나타내는 단어들로서 《일간신문》, 《주간신문》, 《월간신문》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러한 단어들이 실례에서 나타내는 언어환경적의미는 《매일 한번씩 쓰는 편지》, 《한주에 한번씩 쓰는 편지》, 《한달에 한번씩 쓰는 편지》 등이다.

신문과 편지는 다같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소식을 알려준다는 측면에서 의미적공통성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전의되어 쓰이게 되었다.

언어환경에 의한 중국어어휘적의미의 전의현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먼저 중국어단어의 다의성을 리용한 전의현상이 있다.

중국어단어의 다의성을 리용한 전의현상은 특정한 언어환경에서 단어형식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산생된 전의현상이다.

접수자는 반드시 상하문맥에 기초하여 해당 단어가 나타내는 실질적의미를 가려보아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그대로 해석해도 된다.

례: 甲: 上星期, 一粒沙子落入了我妻子的眼睛里, 她只好去医院, 结果花了三块钱。

乙: 那不算什么。上星期, 一件皮大衣落入我妻子的眼睛里, 结果我花了三百块!

(갑: 전번주에 모래 한알이 내 처의 눈에 들어가서 안해는 할수없

이 병원에 가서 3원이나 썼네.

을: 그게 뭐 큰거라구. 전번주에 가족외투가 내 안해의 눈에 들어서 나는 3백원을 썼네.)

우의 실례에서는 단어 《落入》가 가지고있는 다의성을 리용하여 언어환경적의미를 표현하였다. 실례에서 처음으로 쓰인 《落入》의 의미는 기본의미로서 《(눈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두번째로 쓰인 《落入》는 전의된 의미로서 《(눈에) 들다》라는 뜻을 나타내고있다. 실례에서 보는것처럼 전의된 의미는 표현이 유모아적이고 재치있고 자연스러운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게 된다.

다른 실례로 《吃不了兜着走》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나타내는데 만일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이 말을 한다면 이때는 《랑비를 없애기 위하여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다. 또 다른 실례로 《90年代的活雷锋(90년대의 산뢰봉)》에서는 규정어 《90年代的活(90년대의 산)》의 제약을 받아 《雷锋(뢰봉)》이라는 고유명사는 《참된 인간》이라는 전의된 뜻을 가지게 되었다.

다음으로 정황을 리용한 전의현상이 있다. 정황을 리용한 전의현상은 눈앞에 펼쳐진 정황이나 현상에 의거하여 뜻을 전의시켜 자기가 표현하려는 의사를 예둘러 점잖게 표현하는것을 말한다.

례①: 介绍人抽了一口烟, 然后问道: “姑娘, 你对那个男的初步印象如何?”
姑娘: “他说话和你抽烟一样。”

介绍人: “自然, 潇洒?” 姑娘: “不, 吞吞吐吐。”

(중매군이 담배를 한모금 빨고나서 물었다. 《처녀동무, 동무는 그 남자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떻소?》

처녀: 《그 사람이 말하는것과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것이 꼭 같았

어요.》

중매군: 《자연스럽고 멋있었소?》

처녀: 《아니요. 오물쑈물해요.》)

②: 灰灰: “掉光了我就镶满口金牙! 公社马主任就镶了金牙, 人家说话才是金口玉言哩!”

(회회: 《이발이 다 빠지면 금이발을 하겠어. 회사의 마주임은 금이발을 해넣더니 그의 입에서는 금옥같은 말만 나오더라 말이요!》)

우의 실례 ①에서 《吞吞吐吐》라는 말은 담배를 피울 때 연기가 입이나 코구멍으로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광경을 나타내고있다. 처녀는 이러한 현상에 비유하여 선을 본 남자가 《오물쑈물하며 씨원스럽지 못하다》는 전의된 의미를 해학적으로 나타내었다. 실례 ②에서는 《金牙(금이발)》을 리용하여 《金口玉言(금옥같은 말)》이라는 전의된 뜻을 이끌어내었다.

또 다른 실례로 주력배정에 대하여 묘사한 시가 있는데 그중에는 《顶天立地, 咱不生气》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顶天》은 《하늘을 떠이고있는 만장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立地》는 《땅에 붙어있는 1층》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있다. 결국 실례는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추운 맨웃층이나 사시장철 음침하고 습한 1층이 차례저도 타하지 않겠다는 필자의 의사를 유모아적으로 나타내고있다.

다음으로 어음모방을 리용한 전의현상이 있다.

어음모방을 리용한 전의현상은 주어진 언어환경에서 어음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를 리용하여 언어환경적의미를 나타내는 전의현상을 말한다.

실례로 《气管炎》은 원래 《기관지염》이라는 의미를 나타내지만 전의된 의미로서는 《妻管严(안해를 무서워하는 남자)》이라는 의미를 나타낼수 있다. 왜냐하면 《气管炎》과 《妻管严》은 어음이 비슷하

기때문이다. 그리고 《太平洋의警察——管得宽(태평양의 경찰같이 관할범위가 지내 넓다)》과 같은 일부 비유해석어들도 다 이런 어음모방방식을 리용하여 전의된 뜻을 나타내고있다.

례①: 有一天, 老杨带着八岁的宝贝儿子捧着一盒包装精美的糖果登门造访。临走时, 坚持要留下那礼物, 说: “ $\sqrt{2}$ 啊, 收下吧!” “ $\sqrt{2}$? ” 我一听不禁愣住了。哪知老杨的儿子说 “ $\sqrt{2}=1.41421\cdots$, 就是 ‘意思意思而已’ 啊!” (어느날 양동무가 8살난 귀여운 아들애를 데리고 곱게 포장한 당과류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돌아갈 무렵에 선물을 기어코 받아달라고 하면서 《 $\sqrt{2}$ 》입니다. 받아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 $\sqrt{2}$?》나는 듣고나서 어리둥절해졌다. 그런데 양동무의 아들이 《 $\sqrt{2}$ 》갈기는 1.41421이 아닙니까 …, 성의뿐이라는 뜻입니다.》라고 말할줄이야 어찌 알았겠는가!)

②: 甲: 好好学, 别捣乱! “人之初, 出入门在外, 外面有狗, 狗屎没人睬, 采野菜, 菜是咸的……”

乙: 怎么是咸的?

甲: 它不是腌萝卜吗?

乙: 这也有啊?

甲: 有! “菜是咸的, 地里产粮, 凉了再热, 热了打扇, 善——性本善!”

(갑: 말썽을 부리지 말고 착실하게 공부해! 《사람이 처음 집을 떠나 외지에 나오면 외지에는 개가 있지만 개똥은 누구도 밟지 않아. 산나물을 뜯으면 산나물은 짜고 …》

을: 왜 짜니?

갑: 절인 무우니까!

을: 그런것도 있지?

갑: 있지 않구! 《산나물은 짜고 땅에서는 곡식이 나오고 식으면 덥히고 더우면 부채질을 하고 사람의 본성은 원래 선하니까!》)

우의 두 실례는 다 해당 언어환경에서 어음이 같거나 비슷한 단어들을 리용하여 뜻을 전의시킨것들이다. 실례 ①에서 《 $\sqrt{2}$ 》는 수학에서의 두제곱뿌리를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 $\sqrt{2}$ 》의 값인 《1.41421》의 음을 리용한 전의현상으로서 《意思意思而已(성의뿐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물론 이러한 전의현상은 선물을 주고받는 해당 언어환경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례 ②에는 《初, 出》, 《睬, 采》, 《粮, 谅》, 《扇, 善》처럼 어음은 같으나 단어형태와 뜻이 다른것들도 있고 《热, 热》처럼 어음과 단어형태는 같지만 뜻만 다른것들도 있다.

아래에 해당 언어환경에서 어음모방을 리용하여 단어의미가 전의되는 다른 실례를 들어보자.

자료에 의하면 어느 한 사람이 현령을 할 때 어느해 설날 민심을 알아보려고 일반 백성옷차림을 하고 밖에 나갔다가 있는 일이라고 한다. 그는 어느 한 집에 다음과 같은 매우 이상한 주련이 걸려있는것을 보았다. 세로주련은 《二三四五; 六七八九(이삼사오, 률칠팔구)》이고 가로주련은 《南北(남북)》이었다. 현령은 이것을 보고 빙그레 웃으며 하인을 보내여 쌀과 옷을 가져다 그 집에 보내주었다. 물론 주인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다. 이 주련을 보면 수자에서는 《一(일)》와 《十(십)》가 없는데 《缺 ‘一’ 少 ‘十’ (일과 십이 부족하다)》를 어음모방현상을 리용하여 전의시키면 《缺衣少食(입을것과 먹을것이 부족하다)》가 되며 《东西南北(동서남북)》에서 《东(동)》과 《西(서)》가 없는데 《缺少东西(동서가 없다)》를 어음모방현상을 리용하여 전의시키면 《缺少东西(물건이 없

다)》로 된다. 즉 이 주련이 내포하고있는 의미는 이 집에 설명절을 설 옷도 먹을것도 물건도 없다는것이다.

이처럼 인물이 처하여있는 구체적인 언어환경에 따라서 언어생활에서는 같은 말을 가지고도 서로 다른 뜻을 나타낼수 있으므로 해당한 언어환경에 근거하여야만

언어표현자가 표현하려는 의미 즉 전의된 의미를 정확히 리해할수 있다.

우리는 중국어전의현상을 비롯한 언어 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강성국가건설에 써먹을수 있게 외국어를 소유하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